



농림부 조류인플루엔자 예보 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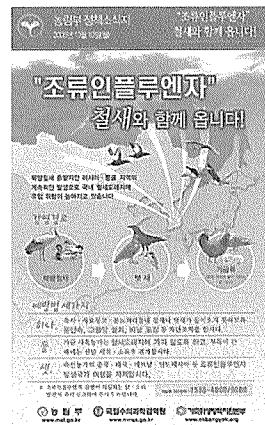
지난 14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예보를 발령하였다.

이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에 이어 러시아·카자흐스탄·몽골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 만주 등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전파 요인이 되는 북방철새의 국내 도래시기 10월말이 다가오고 있어 철새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이 매우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발령한 것이다.

예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임상증상, 전파방법, 예방대책, 발생시 조치사항을 등을 미리 농가에 홍보하여 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를 슬기롭게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조류인플루엔자 홍보물 15만부 발송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공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홍보물을 양계·오리·칠면조 등 농가와 관련단체에 예방법 홍보물 15만부를 배포하였다.



농가에서는 철새 농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사·사료창고·분뇨처리장내 철새와 텃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포장 등 차단조치를 하고, 가금사육농가는 철새도래지에 가지 말고, 부득이 간 때에는 신발세척·소독을 생활화도록 하였다.

축산농가의 중국·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자고 홍보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설정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운영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원에서는 검역홍보물인 치아크리너를 제작하여 각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국경검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0대 원장에 최정섭씨 임명



◀ 최정섭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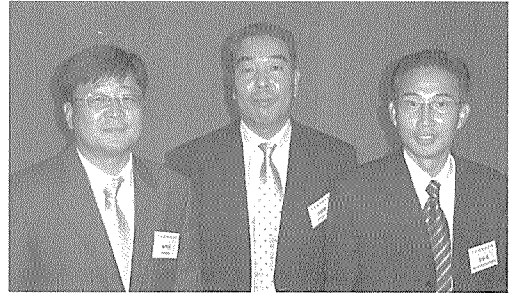
지난 9월 30일 임기 3년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0대 원장에 최정섭(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하였다.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 신임 원장은 대통령자문 농어촌발전위원회 전문위원과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 등을 지냈다.

가금질병연구회 2005년도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 개최



가금질병연구회(회장 나만채)가 지난 12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80여명의 양계수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뉴캐슬병, 마이코플라즈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주제발표와



▲ 선임회장에 선임된 나만채 회장(좌), 송치용 부회장(중), 권용국 총무(우)

토론이 있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정기총회에서 양계수의사들은 동호회의 선임회장으로 나만채 한국가금연구소 수의사를 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송치용 보람동물병원 수의사를 부회장, 권용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박사를 총무로 각각 선임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1회 전직원 체육대회 및 윤리현장 전포식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22일(토) 충북 옥천 공설운동장에서 체력단련 및 직원상호간 화합을 통한 근무의욕 제고를 위해 윤리현장 전포식 및 제1회 전직원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방역사, 도축검사

원 등 방역본부 임직원 3백50여명 이 전원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20여명의 관계인 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축전염병 근절,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양축농가 소득증대, 국민 보건향상 등 방역본부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전 임직원의 윤리헌장 선포식을 거행했다.

한국양계농협

임시총회에서 신임 이사 선출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이영재)는 지난 14일 서울 한강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비롯하여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였다.

이번에 선출된 이사는 지역별 조합원 수에 의거 수도권 4명, 경상도 4명, 전라도 3명을 기준하여 수도권 이사로는 이영재 조합장을 예외로 하고, 천강균, 오세을, 장일광(감사), 경상도 이사는 이인호, 김진남(감사), 정재필, 오정길, 전라도는 서효신, 권동혁, 김복남씨를 각각 선출하였다. 또한 상임이사로 조규진 현 상임이사가 선출되었고, 장경남 한경대 교수가 사외이사로 유임되었다.

동 조합의 이사 임기는 4년이며, 상임이사는

2년후 재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8·31부동산대책 입법화 추진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법인세 최고 55~60% 증과

정부가 입법화를 준비하고 있는 8·31부동산대책에 의하면 개인이나 법인 소유한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주업으로 하지 않거나 부재지주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개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60% 적용하고, 법인에 대해 개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인세 특별 부가세 30% 부과하게 된다.

개인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1세대 3주택에 준한 양도세율 60%를 적용하고, 종전에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 공제)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13%(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또는 25%(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와 함께 별도로 30% 세율의 법인세가 추가됨으로써 최고 55%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재촌·자경하는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소유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야도 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영림계 확인가를 받아 사업중이면 제외된다.

동 제도는 매물 유도를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0일부터 21일

까지 관계부처별로 실무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서울축협 김종오 신임 조합장 취임식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소재 공향웨딩홀에서 서울축협의 제 18대 김종오 조합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종오 조합장은 제 12대, 13대 조합장을 지낸 인물로 최근의 서울축협의 위기를 극복할 인물로 추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오 조합장은 취임사로 통하여 동축협의 무너진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뼈는 깎는 각오로 정진하고자 밝혔다.

축산신문사 산란계 자조금, 배합사료 판매액에 일괄 포함 대안 제시

지난 11일 축산신문(대표 윤봉준) 주최로 '산란계 자조금 추진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이재용 축산경영과, 농림부 사무관, 김선웅 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장, 충남대 박종수 교수는 계란 자조금은 계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



문에 타 자조금과는 전혀 다른 가축생산물에 자조금 성격의 자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유럽 방식을 원용한 한국형 계란자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 교수는 자조금 조성은 축종과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란계의 경우 집하장에서 거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국내 계란유통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료 매출액에서 일정액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시 말해 배합사료업체들이 농가들에게 직접 자조금을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란 농가들의 동의를 전제로 배합사료 판매액에 일괄적으로 자조금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결국 배합사료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농가들의 납부 거부에 따른 대납 문제나 사료의 이용시점과 대금의 회수시점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계산물 안정성과 소비대책을 위한 긴급좌담회 개최

(주)축산신문사는 지난 14일 조류인플루엔자 와 관련하여 양계산물 안전성과 소비대책 마



련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각 언론사에서 현재 발생하지 않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과잉 반응을 보이면서 소비가 큰 폭 떨어졌음을 언급하고 사실보도를 통해 소비위축을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잘못된 언론 보도 즉 지난 1918년 스위스에서 발생한 살인독감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유전자형이 다르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올바른 보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생산자 대표로 참석한 김선웅 본회 부회장은 농가의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가에서 철저한 소독과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김선웅 본회 부회장, 김재홍 검역원 질병연구부장, 박종명 수의공중보건학회장, 강광파 소시모 이사, 홍응수 한강씨엠 대표, 이정현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장이 참석하였다.

항생제 사용절감을 위한 연구모임 1차 회의 오는 11월 8일 농림부에서 개최

농림부는 오는 11월 8일 항생제 사용절감을

위한 연구모임 구성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식육 중 잔류·내성균 출현문제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생제사용절감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1차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용란에 엔로플록사신 검출 과태료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광주지방식약청이 최근 유통중인 식용란에 대한 수거 검사한 결과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되어 광주시와 전북도가 해당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도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2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생산한 농가를 지도하고, 약사법 제72조의6 및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가에서는 산란 중에 닭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엔로플록사신 등의 동물약품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이봉덕)에서는 2005년 11월 18일(금) 09:00~18:00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동(관악캠퍼스)에서 제22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